

미국 에너지재생기업 대이란 투자계획 발표

(2014. 7. 06)

이란주재원

□ 미국의 에너지 재생기업인 World Eco Energy Co사는 총 12억불 규모의 대이란 바이오 에너지부문 투자 계획을 발표

- 미국 에너지재생 기업인 World Eco Energy Co사*는 지난 7월 5일 이란 남서부 차하르마할(Chaharmahal)-박티아리(Bakhtiary) 지역에 총 24억불(미국측 12억불, 이란측 12억불)을 투자, 생활쓰레기를 소각, 전기로 재생하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, 이를 위해 이란정부와 사전계약(preliminary agreement)을 체결하였다고 발표(AFP News agency, 2014.7.5)

*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며, 정확한 기업실상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국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인 것으로 알려짐

- 동 투자계획은 2014년 9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총 공사기간은 24개월~36개월임
- 동 에너지 재생시설은 완공후 일일 1,5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해 25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됨

□ 미국 소재 기업의 첫 공식적인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는 향후 서방의 대이란 사업 진출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알리는 데 의의

- 현재 이란과 P5+1과의 핵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의 대이란 진출은 점차 가시적인 상황

- 최근 일본의 경우, 민간 종합상사를 내세워 대이란 대규모 프로젝트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, 여기에는 JBIC 등 일본 금융기관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.
-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으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대비해 삼성전자, LG전자의 대이란 투자규모 확대(이란 현지생산업체 간접지원 방식), 기아자동차의 이란 자동차업체와의 합작생산 재개(이란 자동차업체를 통한 내부 정보 입수) 등 이란시장의 선점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. 끝.